

# 인도의 전통자수 MIRROR WORK에 관한 연구

한 연 희

숭의여자대학 패션디자인전공 전임강사

## A Study on India's Traditional Embroidery, Mirror Work

Yeon-Hee Han

Full-time Instructor, Major in Fashion Design, Soong Eui Women's College

(2010. 11. 29. 접수; 2010. 12. 28. 수정; 2011. 1. 4.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India's traditional embroidery method, Mirror Work, and to evaluate the examples of contemporary costumes as well as the applications of art to clothing that have been influenced by this technique, in order to expand its usage for creation of a new fashion image.

Research in the literature and application of works related to Mirror Work have demonstrated:

First of all, as a traditional embroidery method that represents the folk art of India, Mirror Work displays unique methods used in different regions and the way that various methods and materials were combined by the use of mirrors, beads, and appliqué.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presentation of Mirror Work in the prêt-a-porte collection is based on a traditional embroidery method using both developed materials and adapted methods to express traditional reproducibility, geometric simplicity,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omplex decorations. Thirdly, new plasticity for art to wear clothing can be created through various methods aside from embroidery, for example by a technique of wrapping crochet laces and tapes around the mirror for decorative purposes.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be inferre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ple forms for decorations, Mirror Work shares multiple forms of personal aesthetic goals through the mirror's unique quality for expression and enhanced images of artistic decorative art. Also, the introduction of traditional materials and methods for today's folk art and traditional costumes can be the subject of unique aesthetic characteristics based on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recreation of tradition. Finally, it can further create a new plasticity within the globalization phenomena.

**Key Words:** Traditional embroidery(전통 자수), Mirror Work(미러 워크), Traditional reproducibility (전통적 재현성), Geometric simplicity(기하학적 단순성), Complex decoration(복합적 장식성)

---

Corresponding author ; Yeon-Hee Han

Tel. +82-2-3708-9255, Fax. +82-2-3708-9124

E-mail : yhhan524@sewc.ac.kr

## I.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첨단과학기술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의 문화와 정보가 쉽게 교류하고 전파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형식주의적이며 합리적인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개방성,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종합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양상이 패션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최영옥, 2005).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서구중심적인 복식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어 비서구권을 포함한 소수민족 등 다른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오늘날 에스닉 패션의 요소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에 민속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를 반영한 패션조형을 통하여 독특한 민속적 미의식을 밝혀보고 글로벌 세계화시대에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새로운 복식조형의 창조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패션분야에서 1970년대 이후 인도의 전통복식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아시안 룩을 대표하는 에스닉 패션의 요소로써 서구패션에 소개되었다.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호정(2006)은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복식에 관해 연구하였고 전영수(1994)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속 풍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김지연(1999)은 에스닉 양식의 요소로써 인도의 전통텍스타일의 문양과 칼라기법 등을 고찰하여 공간 연출의 적용을 시도하였으며 김난희와 김옥현(2006)은 인도의 에스닉 텍스타일 제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밖에도 이은임과 채금석(2002)은 인도복식에 표현된 정신문화를 연구하였으며 권영실과 조우현(1997)은 인도 종교복식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주로 텍스타일과 전통복식, 그리고 인도의 정신문화가 복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인도의 다양하고 특징적인 장식적 표현방법이 오늘날 현대복식에 어떻게 응용되어 나타났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민족별로 독특한 미적 특성을 표현하는 에스닉 요소 즉, 민속에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도전통자수기법인 **Mirror Work**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며 이를 현대복식의 미적 특성에 응용한 예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더욱 창의적인 새로운 패션이미지 창출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자료를 통하여 인도의 전통자수기법인 **Mirror Work**의 특징을 고찰한다.

둘째, 실증적 연구를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Mirror Work**의 미적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Mirror Work**의 기법을 활용한 예술의상 작품을 제작하여 실용적 의복 뿐 아니라 독립적인 조형물로써 **Mirror Work**의 미적가치와 발전을 모색한다.

기성복 컬렉션의 작품선정은 **Fashion Show**를 비롯한 국내외 패션잡지와 컬렉션,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Mirror Work**기법을 응용한 작품 129점을 분석하였으며, 예술의상은 **Mirror Work**기법을 응용하여 제작·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기법과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 II. 전통 자수기법 “Mirror Work”의 일반적 고찰

### 1. 전통 자수의 개념과 Mirror Work의 역사

자수(刺繡)는 천이나 그 외의 바탕이 되는 물질에 견, 목면, 금·은사와 비즈·스팽글 등을 재료로 바늘을 사용하여 어떠한 문양, 문장, 문자, 풍경, 동식물 등을 표현하여 의복용으로 바느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물이 단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자수라는 작업 과정이 가미되어 더욱 미적표현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자수라고 말할 수 있다(이명준, 최현숙, 2007).

자수는 짐승의 뼈로 만든 바늘로 천과 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직물이 발달하고 복식이 발달함에 따라 미적인 장식의 필요성을 갖게 되면서 자수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

다. 단순한 바느질로부터 시작된 자수는 점차 다양한 목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미의식의 추구, 계급과 신분의 상징, 그리고 인간의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원이나 종교적 목적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각 지역에 나타난 자수 유물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특히 지역 혹은 민족과 같은 자연환경요인은 각각의 고유한 개성을 가진 전통자수를 발생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그 속에 표현된 문양이나 문장 등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시대, 사회, 문화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집단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정신적 경향이나 성격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즉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사상, 행동, 습관, 기술 등이 시각적인 양식인 자수를 통해 그 지역이나 민족 특유의 전통미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명준, 최현숙, 2007).

인도의 전통문화는 수 천년동안 지속되어온 세계적인 주요문명을 대표하며 여러 세대를 거쳐 번창해왔다. 인도의 민속예술은 인도에 이주해온 유목민들과 여러 문명의 혼합, 신화나 미신을 비롯한 상징물들의 영향, 인도의 원주민들의 고대신과 종교의식, 산이나 사막, 그리고 광물 등의 자연적 영향으로부터 발생하여 형식화된 시공간의 의식 안에서 미적 표현의 전통을 지니며 형성되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활 주변의 모든 것을 재료화 하여 감각적으로 활용하였고 하나의 재료는 그 자체만으로 혹은 다른 재료와 합쳐져서 생활의 일부를 차지하는 귀중한 물품으로 만들어져 그들의 민속과 관습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반고지, 1988).

인도의 아름답고 고유한 직물과 장식적인 작품들은 최소한 BC 700년경부터 전설적인 국제 무역 상품이었다(Barnard, 1989). 특히 직물을 장식하는 방법으로 인도인들은 나뭇대로의 염색 기술과 직조, 자수, 아플리케, 퀴팅 등을 사용하여 독특한 미적 감각을 창출하였다.

인도자수의 역사는 BC 1500년경 청동바늘과 자수로 휘장을 걸친 조각품을 통해 발견되며 이와 유사한 자수직물들이 고대 불상에서도 발견되어진다. 고대 인도사회에서 바늘은 여러 천 조각들을 하나로 뭉치는 도구이었을 뿐더러, 신의 도움을 기원하는 표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힘의 상징이 되었다(Cattopadhyay, 1975)

Mirror Work은 인도자수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인도어로는 Shisha, 혹은 Abhala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반사체나 거울을 뜻하며 전통적으로 스케치한 바깥 선에 버튼홀스티치와 같은 수 기법을 이용하여 동그란 모양의 거울을 옷감에 고정시키는 것이다(Cattopadhyay, 1975). Mirror Work은 그 자체만으로는 거칠고 시각적 효과가 적을지 모르나 자수의 일부로서 바탕천과 주변의 문양의 색상과 조화롭게 표현되어 뛰어난 미적 가치를 지닌다.

본래 거울은 고대사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쳐보는 것 이외에 신령을 불러들이는 주력을 가진 기물로 또는 권력이나 재력을 표상하는 보물로 여겨졌으며 또한 빛을 반사하여 반짝이는 거울의 빛나는 표면은 고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거울은 고대의 귀신을 쫓는 부적과 결합하여 인간을 보호하는 기물로서 매우 영향력 있게 여겨졌다. 거울자수는 때때로 드레스나 앞치마의 가슴이나 끝자락, 목선과 목선의 여밈, 커프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옷과 연결되는 경계선에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나쁜 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함이었다(Rivers, 1999).

작은 유리조각이 최초로 어떻게 자수에 사용되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초기의 Mirror Work은 인도를 비롯한 서아시아 지역에서 신석기시대에 흑요석을 원형으로 커트한 것이 발견됨에 따라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광채의 효과로 인하여 흑요석이나 흑운모의 사용으로부터 유래됨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은 그 상징적이고 미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거울의 조각과 유리로 대체되어 사용된다(學習硏究社, 1986).

오늘날 대부분의 거울들은 코팅된 유리로 만들어졌으나 초기의 오래된 예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기원전 3500년 초에 이집트 사람들은 유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유리거울은 아마도 이집트나 중동에서 시작되어 무어족에 의해 지중해를 거쳐 퍼져나갔다(Rivers, 1999). 많은 서구인들에게 인도자수의 상징이 되어온 Mirror Work은 유리생산의 발달과 더불어 17세기 중반 발전하였으며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거울은 매우 풍부하게 자수가 놓아진 고급 옷과 집안 벽걸이 장식, 현

관입구 직물 등에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의 토착 사막의 거주자들의 집안 벽과 가구에 장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페르시아와 무갈 왕궁의 환상적인 거울 방도 만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Srivastava, 2001). 이렇게 Mirror Work은 품격 있는 과거의 유물로써 시작된 후 인도의 지방 특히, Gujarat의 Kutch 그리고 Rajasthan과 Deccan까지 이를 제작 생산하는 여성들에 의해 넓게 퍼져나갔다(Srivastava, 2001).

## 2. Mirror Work의 지역적 특성

인도아대륙(印度亞大陸)은 현재 남아시아에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나라가 위치한 지역을 말하며, 지리적으로 북동쪽은 히말라야 산맥, 남쪽은 아라비아 해와 벵골 만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이 대륙의 자수공예작업은 그것을 생산하는 많은 국가와 부족그룹만큼 스타일이 다양하다.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마을과 부락의 수공예품들은 인도인의 사회경제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오늘날 그 전통은 인도의 위대한 국민적 유산을 표현하고 있다. 인도자수의 특성은 기본적인 수 기법이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그 지역 특유의 양식이 있다. 즉, 인도의 자수는 지역마다 직공들의 새로운 기법의 고안으로 독특한 다양성을 보이며 거울과 비즈, 애플리케 등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이 혼합되어 사용된다. 특히 인도자수를 대표하는 시샤두르(Shisha-dur)라고 불리는 Mirror Work는 이란에서부터 북서를 가로질러 인도와 남쪽으로는 데칸 고원으로, 파키스탄을 거쳐 바루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걸친 지역에 넓게 퍼져 행해졌으며 이러한 “미러벨트”지역은 다양한 Mirror Work의 형태를 보여준다(Rivers, 1999). 특히 Mirror Work이 발달된 인도의 서부지역인 Gujarat주의 Kutch, Saurashtra 지역과 북Gujarat 위의 서부 Rajasthan과 파키스탄의 Sind Tar Park 지방을 잇는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민속자수의 원천지이다(Gillow & Barnard, 1991).

이 지역을 중심으로 Mirror Work의 지역적인

특색과 구조적 특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Gujarat

Gujarat는 인도의 가장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찬 주 중 하나이며 이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풍부한 열정을 가지고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예술적 감각과 공예의 기술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내수공업형태로 물건을 직접 만들어왔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공예기술도 발달하고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점차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 Gujarat 지역에서 Mirror Work은 전문화되었으며 조개껍데기와 보석 등이 함께 수놓아지기도 한다(Cattopadhyay, 1975). 이 지역들은 건조한 땅으로 대부분 계절적으로 양떼, 소떼 낙타들의 목장이 되며 주민들은 영세한 농민과 유목민, 소도시의 상인, 예술인들로 구성되었고 그들도 다른 인도지방과 마찬가지로 계급으로 나뉘어있어 보통 세습적 직업에 의존하였다. 이 계급제도는 문화적 분류를 형성하고 수세기 동안의 인도지역의 이란, 중동,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인구의 유입을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자수 작업에 참여하는 직공들은 이런 유목민들과 농민들로 구성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다(Gillow & Barnard, 1991).

각 계급( caste )은 세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은 채로 그들의 독특한 디자인, 색상, 스티치(stitch)의 폭 등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또 이러한 특징은 그들의 염색기법들과 함께 카스트제도의 문화적인 신분차이를 보이게 하는 주요한 형식이 되었다.

즉, Mirror Work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자수와는 달리 가내 수공업 형태로서 전통 민속과 풍습을 반영하며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혼인 시에 결혼지참금의 풍속을 갖는다. 신부는 신랑 집에 보석과 가정살림 외에 신부와 신부 집 여자들이 만든 많은 양의 값진 자수직물들을 가지고 오며 이러한 작품들은 신부와 신랑의 의복, 새로운 집의 걸이개(hanging), 동물들의 덮개로서 모두 복잡하게 자수를 놓고 작은 거울들을 붙이거나 애플리케한 것이다. 이렇듯 Gujarat 처녀들은 혼수로 가져가기 위해 수놓는 이 풍습을 통하여 인내심과

장래의 희망을 갖고 결혼 후 태어날 자녀에 대한 축복의 꿈을 키우며 수백 개의 거울을 달고 수놓아 몇 달에 걸쳐 완성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수작업은 그들에게 있어 본능적 창작성을 지닌 훌륭한 공예품들이다(Gillow & Barnard, 1991).

Gujarat를 포함한 인도자수의 문양은 대체로 불교와 힌두교 종교적 배경을 표현한 백합꽃, 연꽃, 튜립과 아이리스 등 꽃문양과 새, 초목, 동물, 비쉬누(Vishnu, 태양의 신), 가네시(Ganesh, 행운과 성공의 신), 크리슈나(Krishna, 사랑의 신) 등 신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그 예로 Ganesh Hanging은 Gujarat 자수의 특징적인 민속품인데 Ganesh는 코끼리 머리를 한 신이며 불행을 막아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문양은 신의 숭배를 위한 성체나 결혼식에 많이 사용된다(Rivers, 1999). 이 자수 디자인은 마을의 가장 뛰어난 여성장인에 의해 나무막대에 잉크나 검댕이를 묻혀 그려지다가 나중에는 특별한 나무 인쇄 목판이 만들어졌고 깨진 기와조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찍어 내기도 했다.

① Kutch Style

Gujarat주의 Kutch Style 방식은 주로 Rabari (Caste 名)목자, Kanebi(Caste 名)농민, Ahir(Caste 名) 목축업자 계급들에 의해 제작이 되며 특히 Rabari와 Ahir 여성들은 많은 거울을 사용함으로써 자수의 화려함을 잘 나타내준다. 그 기법의 특징은 주로 체인스티치 (사슬과 같은 형태의 수)와 오픈체인스티치 (체인스티치를 벌려 놓은 모양)를 사용하는데 있다. 색상은 적색, 오렌지색,

백색, 흑색, 녹색의 바탕에 백색, 황색, 녹색, 적색, 때로는 옅은 청색을 사용하며, 문양은 앵무새나 공작새를 결들인 꽃과 동물과 여자가 물통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것들이다

Gujarat 주의 Kutch와 Saurashtra에서는 종교의식을 위해 Mirror Work으로 수놓아진 장식용 걸이개를 붙이는데 그것은 'Toran' 이라 부르며 출입문에 걸어 놓아 신이나 사람을 환영함을 나타내고 경사를 상징 한다(Cattopadhyay,1975). 또한 입구 안쪽에는 'Sankhia' 라고 부르는 L자형 직물을 걸어 놓는데 이렇듯 자수직물로 집안을 장식함은 큰 혼례의 축하와 종교적 행사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건조한 일상생활에서 화려한 색채로 활기찬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그림 1). Toran은 <그림 2>와 같이 종교적인 문양과 꽃문양이 풍부한 Mirror Work기법으로 수놓아져 있음을 보여주며 작은 장식 술과 얇은 끈이 전형적인 구자라트 타입임을 보여준다.

혼인 외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각 성지에서 열리는 대중교 축제이며 이 축제에서 계급들은 서로 만나고 혼례를 약속하거나 축하하는 종교적 의식이 행하여진다. 여기에 군중들은 낙타, 말, 황소의 경주들을 즐기는데 이 경기 동물들은 등을 비롯하여 목, 귀, 다리, 코, 발, 그리고 황소 뺨에까지 자수와 Mirror Work으로 치장된다(한연희, 1991). 그 예로 황소는 자수와 Mirror Work으로 장식된 화려한 'Jhul'이라 부르는 덮개로 씌워지며 'Maffa'라 부르는 나무우차를 끌게 된다(그림 3).

이 밖에도 이 지역의 복장은 자수와 Mirror



<그림 1> Toran 과 Sankhia로 장식한 입구

출처: The shining Cloth (p.111) Rivers, V.Z., 1999, London: Thames & Hudson Ltd.



<그림 2> Toran

출처: Embroidery techniques from East and West (p10) Srivastava M., 2001, London: B T Batsford.



<그림 3> Jhul

출처: www.frontline.in/f12719/stories/20100924271908700.htm  
자료검색일 2010.8.10

Work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꾸며지며 화려한 색상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주변 사막과 어두운 경관에 대조를 이루며 아이들이나 젊은 여성들 복식에 행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 거울의 대부분은 과거에는 Gujarat의 Kapadvanj에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Kutch의 Bhnj와 Saurashtra의 Limri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 ② Saurashtra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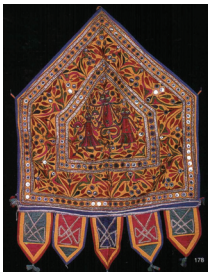
이 지역은 Kathi지방의 독특한 자수와 Kanebi 농민들에 의해 행해진 자수, 그리고 Ganesh 벽걸이에 쓰여진 자수의 본거지이다. <그림 4>는 ‘Ganesh Sthaphana’로서 신혼부부들은 그들의 코끼리 머리를 한 힌두신인 Ganesh 신에게 행운을 빌고자 만든 것이다(Rivers, 1999). Kathipa Style은 Kathi 유목민들에 의해 생산되고 지주계급들의 애용품과 교역상품으로서 쓰여진 자수 양식이며 기법은 바늘땀이 대각선을 이루도록 수놓는 기법과 X형태로 서로 겹치게 되는 수법인 헤링본스티치가 조화를 이룬다. 디자인은 기하학적이며 바깥은 아플리케 되고 안쪽으로는 자수 놓아져 바둑판무늬나 다이아몬드 삼각형의 일반적 배열무늬로 둘러싸이게 된다. 이때 거울은 일정한 간격으로 가장자리와 디자인의 사이사이에 끼워진다. 색상은 남색바탕에 자주색이나 적색을 많이 사용하며 세부장식은 백색, 황색, 또는 녹색으로 수놓아진다. 북서 Saurashtra, Morvi지역, 중앙서부의 Saurashtra 지역의 Kanbi 농민계층들의 자수 작업은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자수작품에는 꽃, 새, 동물, 사람의 모습을 그려냈다. 일반적으로 외곽은 체인스티치로 그리고 헤링본스티치를 이용하여 수놓

아 채웠으며 사용색상은 일반적으로 백색, 황색, 오렌지색의 면 바탕에 밝은 적색, 녹색, 황색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때로는 적색, 자주색, 청색의 바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Gillow & Barnard, 1991).

## 2) Rajasthan

라자스탄의 몇몇 지역에서는 여인들은 치마에 커다란 거울조각을 새겨 뚜렷한 패턴으로 자수를 놓는데 그것은 그들 종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그림 5). 그들은 손자수로 쉽게 동그란 원형조각과 다른 비정형적인 것들을 함께 수놓아 이들 거대한 조각들을 화려하게 보여준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Lambani (Banjara로 알려진 대그룹의 멤버들)는 그들의 큰 원 거울조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두꺼운 거울들을 아플리케와 자수를 사용하여 화려한 색상조화와 격자무늬의 조합으로 엮어왔다. 원래 서인도의 라자스탄 태생인 반자라인들은 오늘날 인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특히 중앙과 남인도에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다(Crabtree & Stallebrass, 2002). 이들의 직물과 복식은 그들의 독특한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금속비즈, 거울, 아플리케, 술 등 다양한 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수를 놓았다. 한편 Mutwa(caste계급명)계급의 사람들은 작은 거울과 스티치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지역적 스타일 지속적인 응용과 자수를 놓는 이들의 영감,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해가는 취향은 각 지역의 자수들을 더욱 화려하게 발전시켜나간다(Rivers, 1999).

이 지역 외에도 Punjab, Delhi의 일부 지방에



<그림 4> Ganesh sthaphana  
출처: The shining Cloth (p.111) Rivers, V. Z., 1999, London: Thames & Hudson Ltd.



<그림 5> Skirt 부분, Banjara  
출처: The shining Cloth (p.109) Rivers, V. Z., 1999, London: Thames & Hudson Ltd.



<그림 6> Mirror Dress, Sind, South Pakistan  
출처: The shining Cloth (p.113) Rivers, V. Z., 1999, London: Thames & Hudson Ltd.

서도 Mirror Work은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 3) Thar Parker, Sind

남 파키스탄의 Sind지역은 인도의 Gujarat와 Rajasthan의 경계부분에 위치하며 구자라트에서 생활하는 많은 목수들과 예술가들의 고향이다(Crabtree & Stallebrass, 2002).

이 방식은 Thar Parker, Sind지방, Bannikutch와 서부 Rajasthan 지역의 Barmer와 Jaisalmer 등 지역에서 행해졌다. 디자인은 꽃이나 나뭇잎을 추상적 또는 전형적으로 표현하고 주로 새틴(satin) 직물에 화려한 색상을 사용해서 풍요로운 느낌을 전달한다(Cattopadhyay,1975). 여성 블라우스의 전형적인 sind style은 많은 양의 작은 유리 씨비즈가 촘촘히 장미꽃 술 장식으로 새겨져있다(그림 6).

이 방식의 대부분 제작자는 Meghwal(Caste 名)의 여성들로서 그들은 직업과 신분적으로 가족을 다루는 이들이며 Sind Tar Parker 지역에 거주한 직공계층들이다. 그러나 Rajasthan, Jodphur의 서부와 Bannikutch 지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방식이 나타내는 형태의 특징 중의 하나는 풍성한 꽃과 추상화된 새를 수놓는 것이며 주로 붉은 바탕에 거울과 비즈를 곁들여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검은 바탕에 금속 사를 사용한 것이다. sind style의 모든 작업은 방대한 범위의 세련된 스티치 장식과 색상의 조화에서 나오는 생동감으로 크게 특징 지워진다(한연희,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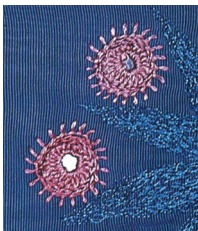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생활의 한 방편이자 민속예술로서 촌락의 마을여성들에 의해 전수되어오던 자수는

오늘날 대부분이 협동체제를 갖추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협동체제의 구성원들은 원재료와 디자인을 구입, 생산하여 인도의 도시주민들과 수출시장에 판매하고 있다(Srivastava, 2001). 또한 이러한 자수 작업은 이들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고 나아가 협동체제안에서 소액의 공동자금을 모아 가게에 유용이 쓰이게 되었다. 이 지역의 저임금은 19세기와 20세기 초 패션산업의 수요로 넘쳐났던 유럽의 작은 공방들로부터 주문을 받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현재는 이 대륙의 국경 없는 작은 공방들이 21세기의 패션 산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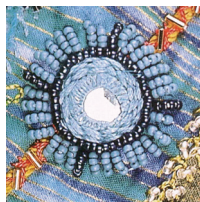
### 3. Mirror Work의 제작방법

거울을 부착하는 Mirror Work은 제작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자수를 놓는 이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있으나 Srivastava(2001)에 의하면 그 기본원칙은 엄지손가락으로 거울조각을 누르면서 그것의 위를 잡으며 기본 스티치가 완성될 때까지 엄지손가락을 이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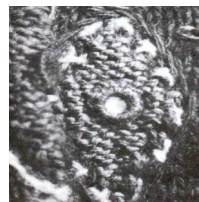
시사스티치로 거울을 고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두 개의 버티컬(수직)스티치를 만드는 것이며 버티컬 둘레로 실을 통과하여 두개의 수평선을 만드는 것이다. 이 때, 실은 단단히 당겨져 스티치를 잡아줌으로써 탑 스티치에 의해 거울의 경계면을 당기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거울 주위로 스티치를 이용하여 앞서 만든 기본 틀을 감싸며 매우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에 앞서 바늘을 가지고 첫 번째 단계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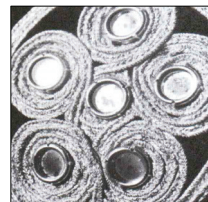
<그림 7> 버튼틀 스티치응용  
출처: Embroidery techniques from East and west (p.31) Srivastava, M., 2001, London: B T Batsford.



<그림 8> 비즈응용  
출처: Embroidery techniques from East and West (p.67) Srivastava, M., 2001, London: B T Batsford.



<그림 9> 나무 틀 이용  
출처: "India의 Mirror Work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한연희, 1991, 이화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그림 10> 금속 링 이용  
출처: "India의 Mirror Work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한연희, 1991, 이화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점에서 반대의 방향의 지점으로 나와 엮으며 고정시켜간다(Srivastava, 2001).

이렇게 시사스티치로 거울조각을 고정시킨 후 다양한 스티치를 활용하여 자수를 놓을 수 있다. 즉 외곽을 체인스티치로 마감하기도 하며 헤링본스티치를 변형하거나 버튼홀스티치를 첨부하는<그림 7> 등 스티치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과 비즈 장식을 둘러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그림 8). 오늘날 위와 같이 스티치로써 거울을 고정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나무나 플라스틱, 금속의 틀(frame, ring)위에 실로 짜서 거울을 안에 고정시키거나<그림 9> 금속 링 자체만으로 거울의 외곽을 짜서 고정시키는 방법<그림 10> 등이 있다(한연희, 1991).

### III. Mirror Work의 조형성

#### 1. 기성복(Ready to wear)에 표현된 Mirror Work의 미적 특성

인도의 정신적 근원인 신에 대한 경외심과 삶에 대한 애착의 표현은 그들이 가진 미적 감각과 더불어 생활 속에 뿌리박은 민속공예품들을 많이 창조해내었다. Mirror Work은 이러한 민속 예술의 정신을 반영한 민속자수의 한 양식으로서 그들의 화려하면서도 상징적이고 생동감 있는 생활상의 미와 종교적 신앙심을 잘 표현해준다.

Mirror Work 자수의 전개는 거울이 지닌 조형적인 특징을 강조하여 거울의 대담한 사용과 다양한 분위기의 창출로써 현대의 이미지에 맞게 재창조의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실증적 연구로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prêt-a-porte collection에 나타난 Mirror Work의 기법과 이미지를 반영한 작품 129점을 발췌하여 그 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전통적 재현성

전통적 재현성은 과거의 현상이나 형태의 재인식을 바탕으로 한 디자이너의 모방과 재창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20세기 이후 현대패션에서는 과거의 복식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재창조하는 에스닉 패션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는 각 나라의 민족, 민속, 토속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한 특정민족의 양식이나 일부 스타일과 형태를 독특하게 재현하는 대표적인 복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도의 전통자수 Mirror Work은 본래의 자수 기법이나 문양 면에서 인도의 토속적인 순수성을 표현한다. 인도의 패션 디자이너 Anamika Khanna, Ranna Gril, Anju Modi는 풍부한 인도의 민속공예의 감성을 반영한 인도풍의 에스닉 의상으로 전통문양과 Mirror Work를 활용하여 고급스런 패션을 선보였다. <그림 11>은 아플리케와 금은사의 자수를 이용하여 인도 전통문양을 직물



<그림 11> 2006 s/s  
Anmika Khanna  
출처: COLLEZIONI (N.109).  
p. 361.



<그림 12> 2006 s/s  
Ranna Gill  
출처: COLLEZIONI (N.109).  
p. 365.



<그림 13> 2006 s/s  
Ranna Gill  
출처: COLLEZIONI (N.109).  
p.365



<그림 14> 2006 s/s  
Anju Modi  
출처: COLLEZIONI (N.109).  
p. 348.



<그림 15> 2005 s/s  
Emmanuel Ungaro  
출처: COLLECTION (Vol.9).  
p. 155.



에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전통 Mirror Work 기법을 사용하여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 12>, <그림 13>은 ‘집시’를 주제로 화려한 꽃 문양과 밝은 색상의 전통 Mirror Work 기법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해 인도복식의 재현성을 찾아볼 수 있다. Anju Modi는 현대와 과거를 연결하는 고리로 전통직물공예 기법을 응용하였는데 금속장식과 Mirror Work은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는 뛰어난 에스닉 패션을 선보였다(그림 14). 이밖에도 Emmanuel Ungaro는 하늘거리는 시스루의 꽃문양위에 다양한 비즈, 스팅글과 시퀸스, 그리고 Mirror Work를 화려하게 수놓아 세련되고 엘리전트한 여성미를 표현하였으며 프린지 목걸이 등으로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었다(그림 15).

이들 작품 모두 전통기법의 Mirror Work를 활용하여 자연과 에스닉 이미지를 조화롭게 표현하며 전통적 재현성을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

## 2) 기하학적 단순성

전통적인 자수기법의 활용이외에도 Mirror Work은 거울이 가진 특수한 표현효과로 인해 미래적이고 실험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이미지의 디자인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자수기법으로 거울을 고정시키고 장식하던 기법은 거울의 반사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며 거울자체만의 기하학적 단순화의 형태를 강조하고 추상적인 기호를 의상에 도입함으

로써 더욱 실험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복식에 표현된 기하학적 단순성은 거울의 표면적인 광택성과 가공기술의 발달로 더욱 단순한 형태의 현대적 조형미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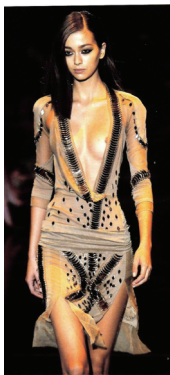
Gucci는 거울의 형태만을 강조하며 선적인 배열로 기하학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 신체를 부드럽게 휘감는 실크의 재질감과 강한 반사광으로 반짝이는 거울의 재질로서 대조를 이루었다(그림 16). Cholé는 니트에 선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거울의 반사적 이미지를 활용한 금속 재질을 부착함으로써 단순한 현대적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그림 17) Versace는 은은한 광택의 직물위에 원형과 사각형의 거울을 고정시킴으로써 광택성과 반사적 효과를 강조한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전개하였다(그림 18).

Luella는 심플한 기본 원피스에 부정형적인 기하학적 형태의 거울을 대담하게 장식함으로써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하였고(그림 19), Sass & Bide는 body fit 실루엣의 미니멀 드레스에 메탈과 거울장식으로만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었다(그림 20).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거울이 가진 표면적 특성은 기하학적 단순미로써 나타나며, 새로운 미래주의적 이미지를 표현함을 알 수 있다.

## 3) 복합적 장식성

복합적 장식성은 Mirror Work의 시각적 장식



<그림 16> 2005 s/s Gucci  
출처: Fashion Show  
(2005 s/s). p. 90.



<그림 17> 2007/08 f/w Cholé  
출처: Fashion Show  
(2007/08 f/w). p. 123.



<그림 18> 2007/08 f/w Versace  
출처: Fashion Show  
(2007/08 f/w). p. 120.



<그림 19> 2007 s/s Luella  
출처: Fashion Show  
(2007 s/s). p. 103.



<그림 20> 2010 s/s Sass & Bide  
출처: Fashion Show  
(2007 s/s). p. 133.



<그림 21> 2007 s/s  
Chloé  
출처: Fashion Show  
(2007 s/s). p.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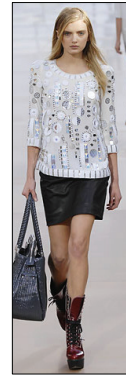
<그림 22> 2008 s/s  
Dres van Noten  
출처: Fashion Show  
(2008 s/s). p. 269.



<그림 23> 2010 s/s  
Miu Miu  
출처: Fashion Show  
(2010 s/s). p. 118.



<그림 24> 2005 s/s  
Blumarine  
출처: Fashion Show  
(2005 s/s). p. 95.



<그림 25> 2007/08 f/w  
Cholé  
출처: <http://www.style.com>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 오프쿠튀르풍의 화려한 여성미를 강조한다. 장식은 인간의 표현본능의 하나로 인간자신과 생활공간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개인의 자아나 미적취향, 신분표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김선영, 2005). 이러한 욕구는 특히 단순함을 특징으로 하는 모던함의 획일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혼용을 통해 화려한 장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예술조형은 자유로운 조형의식과 확장된 표현기법으로 발전하며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장식적인 기법 역시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그 표현양식이나 재료, 기법 등에서 디자이너들의 실험정신과 독창성을 느낄 수 있다(김선영, 2010).

Chloé는 화려한 문양 위에 금속 링, 거울, 비즈, 인조보석 등의 다양한 오브제들을 사용함으로써 거울의 장식미와 함께 수공예적인 화려함이 돋보이는 원피스를 선보였고(그림 21) Dres van Noten은 화려하게 채색되어진 자연적 문양의 팬츠위에 유리비즈, 스팅글, 시퀸즈, 거울 등으로 화려한 장식적 꾸밈이 돋보이는 자켓의 연출로 독특한 수공예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그림 22). Miu Miu는 화려한 금속비즈장식을 사용하여 대담한 거울와의 조화를 이룬 수공예적인 장식미를 부각시켰으며 곡선적인 실루엣과 디테일을 강조한 여성복을 제안하였다(그림 23). 또한 Blumarine는 하이웨이스트로 허리라인을 강조한 실버버클의 벨트, 화려한 염색의 문

양위에 다양한 메탈과 비즈, 거울자수로 화려한 아프리카풍의 장식성이 뛰어난 여성복을 나타내었으며(그림 24) Cholé는 화이트 니트 상의에 투명성과 반짝이는 광택성의 투명 인조보석, 다양한 사이즈의 거울을 활용하여 수공예적인 새로운 장식미를 나타내었다(그림 25).

이와 같이 Mirror Work의 기법을 활용한 여성복은 크게 인도풍의 에스닉 이미지를 부각시켜 표현된 전통적 재현성, 단순한 실루엣에 거울이 가진 반사적 이미지만을 강조하여 나타난 기학적 단순성, 다양한 기법과 오브제를 활용한 복합적 장식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2. Mirror Work 작품특성을 활용한 예술의 상(Art to wear)디자인

복식은 인간이 그 몸과 마음을 담고 있는 자연환경과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창조하는 일상적 생활문화의 일환이다. 아트 웨어(Art Wear), 미술의상, 혹은 패션아트(Fashion Art)로 불리는 예술의상은 이 실용성에 인간의 미적이념을 투영하는 예술작품이자 고급문화의 일환이다. 나아가 예술의상은 인간이 창조하는 제2의 자연으로서의 작품이라 할 수도 있다(Fauchereau, 1988). 이러한 예술의상은 작가들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양식을 구현한 새로운 예술형식을 의상의 형태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며 재료의 독

특한 질감과 결합된 수공예기법이나 회화적, 평면적인 접근방법에서 나아가 인체와 공간의 외부구조와의 관계를 다루는 입체적, 환경적 접근으로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어왔다. 앞서 기성복 컬렉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irror Work은 수공예 기법으로 에스닉풍의 장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편, 거울이 가진 특수한 표면효과로 인해 대담하고 미래적이며 실험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예술 의상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표현감각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도의 Mirror Work을 활용하여 조형적 표현을 극대화한 예술 의상을 제작함으로써 실용적인 의복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조형물로 Mirror Work의 미적가치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제작의도와 활용기법

디자인은 전통적 이미지의 재현성과 복합적인 재료 및 기법을 중심으로 한 장식미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작품은 앞서 고찰한 인도의 전통 Mirror Work 방식 중 Gujarat주의 Kutch 스타일과 Saurashtra 스타일에서 주로 사용된 체인스티치와 헤링본스티치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Mirror Work의 전통적 제작방법을 중심으로 그와 유사한 미적효과를 표현하는 방법상의 응용이 함께 활용되었다. 따라서 각 작품마다 전통 Mirror Work의

기법, 크로세레이스(crochet lace)를 활용한 기법과 거울주위를 테이프로 감싸서 장식하는 방법 등이 시도되었다.

2) 소재와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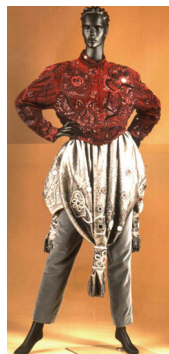
작품의 소재는 노방과 마를 비롯하여 울, 벨벳도 사용되었으며 실험적인 예술 의상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P.V.C의 투명비닐 소재 등도 사용하였다. 그 표현문양은 인도의 고대민속에 서도 기원을 두며 불교의 전파에 따라 우리나라에 전해져 고분벽화나와당의 주 형태로 발달한 연화문와당을 모티브로 응용하였다. 재료는 다양한 유리비즈와 장식테이프 등을 사용하였고 거울은 일반 유리거울보다 무게가 가볍고 가공이 용이한 은색, 동색, 회색 등의 다양한 Acrylic Mirror를 사용하여 소재 자체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었다. 이밖에도 인조보석, 비즈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거울의 반사적 효과와 세부적 장식미가 조화를 이룬 현대복식의미를 추구하였다.

3) 디자인

작품 1은 전통적 재현성을 바탕으로 에스닉 이미지를 강조한 작품이다. 바디라인을 강조한 원피스와 과장된 실루엣의 코트로 오트쿠튀르풍의 장식미를 표현하였으며, 문양의 기법은 전통적인 Mirror Work 자수기법 중 Kutch style에



<그림 26> 작품1  
출처: "India의 Mirror Work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한연희, 1991, 이화여자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4.



<그림 27> 작품2  
출처: "India의 Mirror Work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한연희, 1991, 이화여자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0.



<그림 28> 작품3  
출처: 국제복식학회 의상전, 한연희 작, 2004.



<그림 29> 작품4  
출처: 패션아트전, 한연희 작, 1997.



<그림 30> 작품5  
출처: 패션아트 해외순회전, 한연희 작, 2000.

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체인스티치, 오픈체인스티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비즈와 테이프를 사용하여 반짝이는 광택성과 거울의 반사효과를 강조하였다. 회색투명 아크릴 거울과 블루, 회색 인조보석, 비즈 등을 사용하여 색상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원피스 밑단을 3단 비즈 슬로 장식하여 에스닉 이미지와 율동미를 강조하였다(그림 26).

작품 2는 화려한 무대의상 분위기의 점퍼와 팬츠위에 밑단에 술을 댄 풍성한 장식 랩 스커트를 착용하여 에스닉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Mirror Work**자수 중 **Saurashtra style**의 헤링본스티치와 크로셰 레이스로 거울을 고정시켜 주었으며 브라운, 레드 인조보석과 비즈로 바탕소재와 색상 조화를 이루어 전통미와 장식미의 조화를 이루었다(그림 27).

작품 3은 흰색의 P.V.C 재질을 바탕으로 반사하는 **Mirror Work**의 조화를 시도한 실험적 예술의상이다. 아크릭 페인팅과 테이프 수로 문양을 표현하고 거울을 고정시켰다. 흰색, 회색, 검정의 무채색과 거울의 반사효과가 강조된 실험적 작품이다(그림 28).

작품 4는 블랙의 이브닝 실크드레스로 투명성이 강조된 노방소재와 화려한 거울의 장식이 엘레강스한 여성미를 돋보이게 하는 작품이다. 검정소재에 다양한 회색 톤의 실버메탈자수와 검정 비즈, 다양한 사이즈의 거울로 화려하고 복합적인 장식미가 강조되었다(그림 29).

작품 5는 소재의 투명성과 거울의 반사체적인 광택성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투명한 P.V.C를 바탕으로 화려한 장식 비즈와 테이프, 거울이 조화를 이루었으며 여성의 곡선미와 복합적인 장식미를 극대화하여 환상적인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특히 **Rajastan**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커다란 거울의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커다란 크기의 거울을 **Mirror Work**와 테이프 자수로 고정시켰으며 장식적인 테이프 끈과 와이어로 흐르는 곡선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그림 30).

이와 같이 **Mirror Work**은 거울이 가진 표면적 특성으로 인해 그 자체만으로도 장식적인 효과가 크며 이를 활용하여 전통적 에스닉풍의 작품성을 강조하거나 오트쿠튀르풍의 장식성 이미

지를 강조하여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다.

과거의 전통문화에서 시작된 수공예적인 기법은 재료의 가공기술 발달과 다양한 기법의 모색으로 인해 오늘날 복식의 모든 영역에서 독창성과 예술적인 조형미를 지닌 고부가가치의 디자인 창출에 부응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IV. 결론

복식이란 개인적인 면에서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극받고 반응하는 인간내면의 관념표출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상과 시대성을 표현하는 정신문화의 산물이다. 이러한 복식문화는 오랜 세월 그 시대나 집단의 내적관념을 표현하기위해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재료와 도구, 기술을 사용하여 서로 독특한 유형으로 발전하여 왔다.

각각의 민속적인 요소들과 독특한 문화양식은 복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에스닉 양식을 보여주며 나아가 그 요소들과 결합, 발전을 꾀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된다.

인도의 전통자수 **Mirror Work**은 민속자수의 한 양식으로서 인도인들의 상징적이고 생동감 있는 생활상의 미와 종교적 신앙심을 잘 표현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민속예술 중 조형예술로서 독창적인 복식표현이 가능한 **Mirror Work**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응용한 기성복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예술 의상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irror Work**은 인도의 민속예술을 보여주는 전통자수기법으로서 그 재료의 독특함으로 인해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장식표현방법이다.

둘째, **Mirror Work**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도의 전통자수는 지역마다 직공들의 새로운 기법의 고안으로 독특한 다양성을 보이며 거울, 비즈, 아플리케 등 여러가지 재료와 방법이 혼합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오늘날 민속적 장식요소로서 **Mirror Work**은 독특한 장식예술의 공예적 이미지를 통해 복

식의 독자적인 조형성을 추구 할 수 있다. prêt-a-porte collection에 나타난 Mirror Work의 표현방법은 전통적 자수기법을 바탕으로 발전된 재질과 응용된 기법을 활용한 전통적 재현성, 거울이 가진 반사적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기하학적 패턴으로 표현된 단순성, 재료와 다양한 기법의 혼용으로 인한 복합적 장식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넷째, Mirror Work 기법을 응용한 예술 의상 작품은 Mirror Work 자수기법, 크로세레이스의 기법, 거울주위를 테이프로 감싸서 장식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다섯째, 오늘날 거울의 재질은 일반 유리거울보다 무게가 가볍고 가공이 용이한 Acrylic Mirror의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색상 면에서도 소재와 쉽게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장식적 재료들인 인조보석, 비즈, 장식 테이프 등과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장식의 표현기법은 오늘날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과 기계화의 영향으로 더욱 발전하여 고부가가치의 미적 특성을 지닌 복식 디자인으로 개발할 여지가 많다. 오늘날 복식표현에 있어 민속예술과 민속복식의 전통적인 유형이나 기법 등의 도입은 전통의 재창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각도에서 독특한 미적 특성을 지닌 복식표현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화에 조화를 이룬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 민속양식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복식디자인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권영실, 조우현. (1997).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4), 677-688.  
 김난희, 김옥현. (2006). 인도 에스닉 텍스타일을 응용한 패션제품 개발. *시각디자인 연구*, 21,

23-34.

- 김선영. (2005). 머프의 사적고찰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4), 513-525.  
 김선영. (2010). 현대패션에 나타난 꽃 이미지의 표현특성. *복식*, 60(8), 1-14.  
 김지연. (1999). *에스닉 양식에 의한 텍스타일 디자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반고지. (1988). *인도의 전통과 변화*. 서울, 현음사.  
 이명준, 최현숙. (2007). 한국전통자수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1-문양을 중심으로. *복식*, 57(3), 176-190.  
 이은임, 채금식. (2002). 인도복식의 정신문화연구. *한복문화학회*, 5(1), 85-98.  
 전영수. (1994). *현대패션에 나타난 인도 민속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옥. (2005). 현대 에스닉패션(Ethnic Fashion)의 특성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5), 481-493.  
 최호정. (2006).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전통복식. *복식*, 56(9), 127-142.  
 한연희. (1991). *India의 Mirror Work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學習研究社(編). (1986). *季刊 裝飾* 11. Tokyo: 學習研究社(株).  
 Barnard, N. (1989). *Living with Decorative Textiles*. London: Double Day.  
 Cattopadhyay, K. (1975). *Handi craft of India*. New Delhi: India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  
 Crabtree, C. & Atallebrass, P. (2002). *Beadwork*. London: Thames & Hudson Ltd.  
 Fauchereau, S. (1988). *Arp*, New York: Rizzoli.  
 Gillow, J & Barnard, N. (1991). *Traditional Indian Textile*. London: Thames & Hudson Ltd.  
 Rivers, V. Z. (1999). *The Shining Cloth*. London: Thames & Hudson Ltd.  
 Srivastava, M. (2001). *Embroidery techniques from East and West*, London: B T Batsford.  
 COLLECTION. (Vol.9). p. 155.  
 COLLEZIONI. (N.109). p. 361  
 Fashion Show. (2005 s/s). p. 90

Fashion Show. (2007 s/s). p. 103

Fashion Show. (2007/08 f/w). p. 123

Fashion Show. (2008 s/s). p. 269

Fashion Show. (2010 s/s). p. 118

'ready to wear collection'. 자료검색일 2009. 3.

5,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Jhul', 자료검색일 2010. 8. 10, 자료출처: [http://](http://www.frontline.in/fl2719/stories/20100924271908)

[www.frontline.in/fl2719/stories/20100924271908](http://www.frontline.in/fl2719/stories/20100924271908)  
700. htm